# "古典의 正本 작업이 30년 편집인생의 꿈"

## 출판의 원칙과 정통성 지킨 명편집자 정해렴씨

정해렴씨.

**편집자 정해렴씨가 20년간 몸담아온 창비를 정년퇴임했다. 그는 64년 출판계에 첫발을 디딘 후 신구문화사·창비를 거치며 1천여권의 책을 만들어 냈다. 《임꺽정》《채만식 전집》《역주 목민심서》 등 그의 손을 거쳐 명저와 정본으로 재탄생한 책은 많다. 그는 이제 현대실학사 사장으로 출판인생의 제2기를 준비하고 있다.**

진정한 편집자, '진정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력을 갖춘 편집자가 드물다는 것은 우리 출판계의 결코 달갑지 않은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영세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편집자 중심의 차분히 생각하고 기획하여 책을 만들어내는 여건이 못되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드물지만 몇몇 뛰어난 편집자의 존재는 그만큼 더 소중하다.

창작과비평사 비상근 편집고문 정해렴(丁海廉 56)씨의 존재는 편집자의 이름을 단 '현역' 가운데 경쟁자 없는 최고참이자 편집·교정에 관한 한 제1인자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지난해말 미약한 편집자의 위상을 그대로 대변이라도 하듯 해온 일에 비해 너무도 조용하게 20년간을 몸담아온 창작과비평사를 정년퇴임했다.

### 《채만식 전집》《임꺽정》 등 제모습 찾아줘

"회사를 퇴직했대서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올해말까지는 일주일에 사흘(화·수·목) 창비에 나와 그동안 해오던 '한국대표문학선집'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후부터는 몇해전 내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해놓은 현대실학사에서 꼭 만들어보고 싶었던 책을 하나씩 펴낼 겁니다."

창작과비평사의 책이 정평을 얻는 것은 출판사의 지향을 담아내는 내용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출판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만든 책의 질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마 전자만 있었더라면 출판사로서의 정통성보다는 진보적인 출판집단에 가까웠을지도 모를 일을, 창비가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정본(正本)들을 가장 많이 가진 출판사이자 오·탈자가 적어 책에 신뢰가 가고 또 좋은 기획물이 많은 것에는 상당부분 그의 기여가 있었다.

올해로 쉰여섯인 그는 지난 64년 대학(성균관대 국문과)을 졸업하면서 출판과 첫인연을 맺었다. 이후 30년간을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그의 손을 거친 책은 대략 1천여권. 첫직장은 교학도서였지만, 그의 꼼꼼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철저한 성격은 신구문화사로 자리를 옮긴 뒤 전6권짜리 《한용운 전집》을 만들면서 편집자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한다.

지금 같으면 복사기가 보편화돼 원고를 일일이 베껴야 하는 수고도 적고 잘못 필사할 염려도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도서관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꼼짝없이 붙어앉아 며칠이고 옮겨 적고 그것으로 교정을 보아야 하던 때였다. 단순한 자료집이 아니라 한문으로 된 원문을 번역해 싣고 요즘 독자들이 읽기 좋게 꾸미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각고끝에 73년 완간한 이 전집은 지금까지도 한용운 글의 정본으로 꼽힌다.

《톨스토이전집》《한국현대사》《현대한국문학전집》《시조문학사전》 등 한국출판사에 길이 남을 명저들이 신구문화사 시절 그의 손을 거쳐간 책이라면, 76년 창비로 옮긴 후에는 《한국의 역사인식》(상·하)《한국근대사》《채만식 전집》《역주 목민심서》 등 창비의 대표적인 책들과 창비교양문고의 《삼대》《인간문제》 등과 같은 근대소설들의 정본화에 정성을 기울였다. 특히 전9권짜리 《역주 목민심서》는 "앞으로 목민심서에 있어서는 원문조차도 '창비본'이 기준일 것"이라고 자신할 만큼 이에 들인 그의 노력은 컸다.

그가 正本 작업한 대표적인 책들.

그를 이야기할 때 '정본' 작업이 항상 앞서다 보니 '교정' 업무가 크게 부각되지만, 창비에서 나온 《객주》《녹두장군》《소설 동의보감》《역사 앞에서》 등은 집필과 편집과정에서 그의 편집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된 책이다.

### "독자가 바로 만든 책 읽는다는 게 보람"

교정보는 일은 본질적으로 '원시적'이다. '저 일을 어떻게 다 하고 앉았나' 싶게 그의 책상 위에는 한 보따리는 족히 돼보이는 소설 교정지들이 쌓여 있다. 교정지는 단순히 빨간 정도가 아니라 벌겋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탈자, 오자, 누락 문장 투성이다. '한국대표문학선집' 작업 때문에 《빈처》《배따라기》《벙어리 삼룡이》 등 근대소설들을 교과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본들을 갖고 당시 연재본이나 저자 퇴고본과 대조하며 교정을 본다.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인데도 문장 자체가 아예 빠지거나, 달아난 단어들이 많아 문장이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그런 작품들을 읽으며 지금도 공부하지요. 당시 작품들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교과서 수록 작품들까지 모두 다시 교정을 거쳐야 합니다."

'편집·교정'에 관한 그의 지론은 이렇다. 우선 교정에는 요령이란 게 없다. 논설문은 그래도 문맥을 읽다보면 '여기에 뭐가 빠졌구나' 싶은 데가 있지만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은 묘사문의 특징이 그렇듯 표가 잘 나지 않아 일일이 대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4교, 5교까지 가도 오자가 생기니, 최선의 방책은 "정성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얼마전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실학사 이름으로 《신채호 역사논설집》을 펴냈다. 단재 글의 정수만을 뽑아 일반인도 접근하기 좋게끔 엮은 책인데, 활자의 선택에서부터 구성체재까지 편집·교정·교열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쏟아부은 책이다.

"올해까지는 창비에서 월급이 나오니 이런 책도 내돈 들여가며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작비 정도만 팔려주어도 편집은 월급 줄 필요없이 내가 하니까 만들고 싶은 책을 마음껏 펴낼 수 있을 텐데…."

그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은 《구운몽》《춘향전》과 같은 고전들의 정본화 작업이다. 어쩌면 그의 꿈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 고전 정리작업에 뜻을 두고 돈을 투자하겠다는 출판사가 없는 이상은. 독자가 없는 그 시장에 현대실학사의 이름을 내걸고 그 혼자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출판의 질이 외양의 크기에 비해 형편없이 낮고, 한때 열심이던 편집자들이 왜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고 편집이 '한직'이 되는지는 평생을 외길 편집자로 살아온 그의 작은 '꿈'이 위태로운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날림투성이의 글을 바로잡았다는 뿌듯함, 가끔 그 노고를 알아주는 독자들의 격려에 찬 전화, 그런 보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그는 말한다. ——정혜옥 기자